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개

### 익산시, 3억2000만원 지원...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 접수

익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2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목표로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에 생산된 경유차와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이 중 익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격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시는 올해 사회적 공헌·약자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헌·약자, 화물차 신청자 배정 불량 미달 시에는 일반 참여자에 배정·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으로 3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은 8일 익산시를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00kg(10kg, 100포)을 기탁했다.

###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미등록 경로당 백미 100포 기탁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은 8일 익산시(시장 정현을)를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00kg(10kg, 100포)을 기탁했다.

기탁 받은 백미는 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내 미등록 경로당 82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병절을 맞아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

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은 친환경 벼 재배 8개 읍면 작목반 연합으로 만든 '새별가리 작목회'를 계승해 2013년 2월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2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열정을 갖고 친환경 쌀 생산 유통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 친환경 쌀 및 잡곡류를 자체적으로 생산·공급·유통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건설 사업장 지역 인력고용 · 장비 활용 도모

###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관내 주택건설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택건설 사업장에 지역인력 고용과 지역장비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최근 군산현대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신역세권지구 LH 공공입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9개

단지 7,149세대가 건설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역 내 하도급 업체를 활용하고 지역 인력고용 등을 통한 'Buy 군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군산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Buy 군산'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하여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합

께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 구조안전성 등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의 주택 구입자금이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 내 생산자재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12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12일까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중점 지도·단속 품목은 과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품과 과일부꾸니, 버섯류, 인삼 제품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강사 공개모집

### 어린이들에게 숲 체험 · 다양한 자연놀이 지도...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 · 접수



군산시는 숲체험과 자연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감발달을 도모할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의 강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8.2.7.) 만 19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상 주

소지가 군산이고,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자연환경해설사' 중 자격증 하나 이상 소지자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시연평가 포함)를 거쳐 총 4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강사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공휴일 제외) 활동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지원자는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7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bin930809@koreakr)로 지원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제출란을 참고하거나 어린이 행복과(☎454-4173)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한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관내 어린이들이 숲의 생태를 관찰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기 참여·주도형 프로그램으로, 2016년에는 3,200여명, 2017년에는 4,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수업을 늘려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보건소,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독려

군산시 보건소는 단체생활 시작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 접종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3월 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빠진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확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이며, 중학생의 경우 ▲Tdap 또는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학생만 해당) 등 2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 찾아가는 보훈정책설명회 개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정읍시 보훈회관에서 2018년 보훈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읍시 각 보훈단체장(8명) 및 정읍시 관계자(문화행정복지국 송양조 국장 등)가 참석하여 2018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및 중점 업무 소개, 지방자치단체 주요지원사항 설명, 보훈단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훈정책설명회는 2018년도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방향 공유 및 주요 현안 업무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 강화에 전북서부보훈



지청과 정읍시가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이번 보훈 설명회는 6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관내 6개 시군 보훈회관을 순회하며 보훈단체·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훈정책에 대한 공유 및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보훈단체와 함께 따뜻한 보훈 실천과 보훈정신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동행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